홍성장학회, 장학금 3500만원 전달

(재)홍성장학회(이사장 이장홍 대한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는 지난 20일 대한상호저축은행 대강당에서 '2008년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광주지역 초·중·대학생 110명에게 3천500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홍성장학회는 지난 1993년 고(故) 이관진 전 이사장이 설립했으며, 지금까지 12차례에 걸쳐 광주지역 청소년 1천659명에게 4억2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전남공고 사회복지관에 과일 전달

전남공업고등학교(교장 김용희) 주민 평생교실 수료생 15명은 지난 20일 광주시 광산구 첨단사회복지관과 나사렛집을 찾아 실습 중에 만든 카스테라와 과일 등을 전달했다. 〈전남공고 제공〉

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노숙자 무료 급식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는 21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카톨릭센터 앞길에서 노숙자와 독거노인 등 불우이웃 3천명을 대상으로 무료 급식 나눔 행사를 가졌다. /나명주기자 mjna@

호남공법학회 무료 법률상담 마쳐

호남공법학회(회장 김명재)는 최근 담양·나주권역 상담을 끝으로 '2008 전남도민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을 마쳤다. 학회는 올들어 600여명에게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남극 마라톤 풀코스 완주 재미교포 산악인 김명준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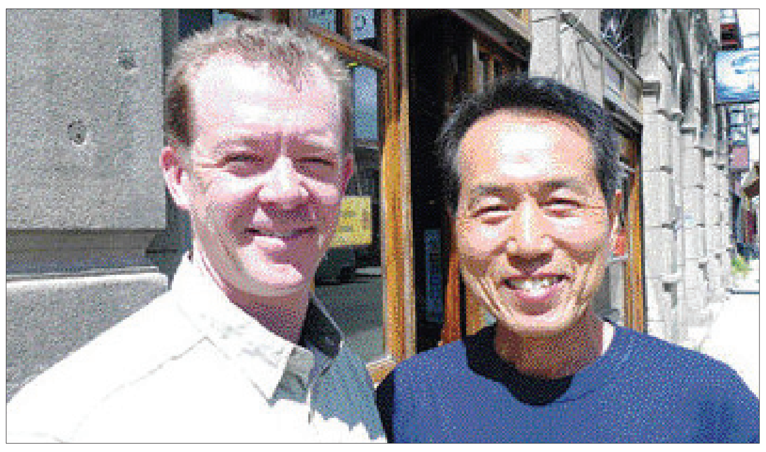
"얼음 위 달리는 60대 보며 삶의 자신감 가졌으면"

극지에서 혹한과 블리자드를 뚫고 빙하와 얼음 위를 달리는 일이 가능할까. 그것도 42.195㎞의 마라톤 풀코스를, 이순(耳順)을 훨씬 넘긴 나이에.

'2008 남극대륙 빈슨 매스프원정대'는 남극의 관문인 칠레 푼타 아레나스에서 또 한 명의 초인(超人)을 만났다. 최근 남극 마라톤대회를 완주하고 갓 돌아온 재미교포 산악인 김명준(66)씨다.

"지금까지 해온 산행이나 마라톤과는 또 다른 희열과 성취감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저의 모습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으면 합니다."

김씨는 남극대륙 패트리어트 힐 주변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 사위인 제프 루더포드(40·변호사)와 함께 참가해 풀 코스를 완주했다. 둘레 25km인 패트리어트 활주로 주변 산을 한 바퀴 돌고 다시 반대 방향으로 17km가량 달리는 이번 대회에서 작성한 기록은 6시간. 평지에서의 풀 코스 기록보다 얼음 위를 달리다보니 대부분 1시간30분에서 2시간 가량 더 걸린다. 달리는 동안 동상을 막기 위해 땀에 젖은 장갑을 계속 갈아 끼고, 윈드자켓의 지퍼가 열리지 않아 입김으로 녹이기도 한다.



최근 패트리어트 힐 주변에서 열린 '남극 마라톤대회(Antarctic Ice Marathon 2008' 풀 코스를 완주하고 칠레 푼타 아레나스로 돌아온 재미교포 산악인 김명준씨(66·오른쪽)가 사위 제프 루더포드씨와 활짝 웃고 있다. /칠레 푼타 아레나스=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김씨가 극지에서 풀 코스를 뛴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에도 사위와 함께 북극점 마라톤대회를 완주했다. 김씨는 내심 '마라톤 그랜드 슬램' 달성을 꿈꾸고 있다. 세계 7개 대륙에서 열린 마라톤대회와 북극 및 남극 대회를 모두 완주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예로 이 월계관을 쓴 사람은 30명 안팎에 불과하다. 그에겐 내년 1월 20일 아프리카에서 열리는 대회가 마지막 관문이다.

사실 그는 마라토너이기 이전에 산악인이다. 지난해 6월 7대륙 최고봉을 완등한 최고령자(63세 258일)로 세계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렸다. 1999년 아프리카 킬리만자로(5,895m)를 시작으로 남미 아콩카구아(6,959m), 유럽 엘브루스(5,642m), 북미 맥킨리(6,194m), 호주 코지어스코(2,228m), 남극 빈슨 매시프(4,897m), 에베레스트(8,848m), 오세아니아 최고봉인 칼스텐츠(4,884m) 정상을 차례로 올랐다.

재미한인산악회 회장을 역임하고 지난해에는 산악운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산악대상'을 받기도 했다.

/칠레 푼타 아레나스=정후식기자 who@

광주지검 형사3부 '전국 최우수'

친환경농산물 인증비리 등 중요 사건 해결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양부남)가 대검찰청이 실시한 2008년 전국 검찰청 형사부 종합평가에서 '올해의 최우수 형사부'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22일 대검철청에서 갖는다.

7명의 검사와 11명의 수사관으로 이뤄진 광주지검 형사3부는 이번 종합평가에서 수사와 사건처리 등 업무처리와 관련된 모든 분야와 각종 연구실적 등에서 탁월한 실적을 인정받았다.

지난 9월 전국 최초로 친환경농산물 인증 비리를 포착해 6명을 구속한 것을 비롯한 ▲먹을거리 위반 음식점 36곳 적발 ▲수학여행 차량등록증 변조사범 적발 ▲요양보호사 자격증 신청 서류 허위발급 직업소개소 소장 구속 ▲뇌물수수 경찰관 구속 ▲양식장 소독제 보조금 편취단 적발 등 올 한해 10여건의 굵직한 사건들을 해결했다.

양부남 부장검사는 "형사부는 주로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처리하고 있어 민생과 직결돼 있지만, 폭주하는 업무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역할이 저평가돼 있다"며 "그러나 형사3부는 분쟁 해결·부정부패 척결·치안 확보 등 소임을 다해 큰 상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전국 103개 검찰 형사부 가운데 '최우수 형사부'로 선정된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양부남·왼쪽에서 네번째) 소속 검사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일보 '고마워요 당신의 땀방울'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광주일보 기획탐사 보도물 '고마워요 당신의 땀방울(외국인노동자의 삶과 꿈)'이 한국기자협회 주관 '제219회 이달의 기자상' 지역기획 신문·통신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고마워요…'는 외국인 100만명 시대를 맞아 국내에 거주중인 외국인 노동자의 삶을 집중 조명함으로써 다문화 사회에 공존의 대안을 모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광주일보 채희종·나명주·윤영기·김대성·최경호·안현주·이은미 기자 등 7명이 올해 1년간 외국인 노동자들의 삶의 현장을 생생하게 취재했다. 특히 필리핀, 베트남, 네팔 등 5개국 현지 취재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송출 과정의 문제점과 인권유린 실태 등을 심층 보도했다.

광주일보는 지난해 연중 기획물인 '온누리안(국제결혼 다문화 가정) 리포트'에 이어 올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삶을 집중 조명함으로써 '다문화 사회 전환'을 지역내 화두로 등장시켰다. 시상식은 오는 26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우주인 이소연 박사 기후변화 홍보대사에

광주 출신 한국 최초 우주인 이소연 박사가 환경부 '기후변화대응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된다.

이 박사는 기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항공우주과학자로서 평소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을 호소하고, 생활 속에서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박윤모씨 '올해의 배우상'

연극인 박윤모(조선대 초빙교수·극단 포커스씨어터 대표)씨가 한국배우협회가 수여하는 '2008 올해의 배우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38년 동안 연극판을 지켜온 박씨는 올해 모노드라마 '아버지' 100회 공연을 성공리에 바친 공적을 인정받아 영광을 안았다. 시상식은 오는 30일 개최되는 한국배우협회 송년의 밤 행사에서 열린다. /김미은기자 mekim@

윤진섭 교수 하종현 미술상

호남대 미술학과 윤진섭(53·사진) 교수가 제8회 하종현 미술상 평론가상을 받았다.

윤 교수는 홍익대 미대 회화과를 졸업한 뒤 호주 웨스턴 시드니대 철학박사를 거쳐 제1회 서울국제미디어아트비엔날레 예술감독, 상파울루비엔날레 국제전 큐레이터 등을 역임했다. 현재 국제미술평론가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손재홍 의원 '베스트 의원'에

광주시의회 손재홍(민주·동구2)의원이 '2008 베스트 의원'으로 선정됐다.

시의회 출입기자단은 21일 베스트의원 선정위원회를 열고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조례 제정 및 시정 질의,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6개 분야 13개 항목에 대해 평가한 결과, 손 의원이 최고 점수를 얻었다고 밝혔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무등클럽 2대 회장 취임

정종식 세무사가 최근 무등클럽 제2대 회장에 취임했다.

정 회장은 광주지방국세청에서 공직생활을 했으며 현재 정종식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인사

◆SK네트웍스

◇상무 ▲충청호남본부장 김유연

◆한국동서발전

▲호남화력발전처 조수형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화촉

▲정병준(전 구례농고 교사)·고금숙씨 차남 상필(광주일보 사회부 기자)군 이브·클레망스 트레스카씨 장녀 마리옹 트레스카양=27일(토) 오전 11시30분 광주시민회관 옆 광주향교.

▲강해원·서태순씨 장남 성권군 이계윤(전남대 사범대학장)·오정옥씨 장녀 혜원양=27일(토) 낮 1시10분 광주 상록웨딩홀 4층 장미홀.

▲김성만(보성 복래초 교사)·정향자씨 청모군 최명진(전 광주일보 출판국 영업부 차장)·김공순씨 막내 정윤양=28일(일) 낮 12시 광주 갤러리아웨딩컨벤션 2층 사파이어홀.

동창·동문회

▲무진중 22회(회장 박기봉) 송년의 밤=22일(월) 오후 7시 엔터시네마 7층 전가복. 062-233-2337.

▲보성초교 59회 송년회=23일(화) 오후 7시 풍암지구 예가. 011-606-8386(한혜순).

▲재광 영암 낭주중 동문회 창립총회=23일(화) 오후 6시30분 상무지구 조선컨벤션웨딩홀. 010-3838-3026(사무국장 배종규).

▲광주 북성중 27회 동창회(회장 윤영천) 송년 모임=27일(토) 오후 7시 장어나라. 062-571-7288.

종친회

▲청주김씨 재광 종친회(회장 김명식) 송년회=23일(화) 낮 12기 일송정. 062-525-9977.

▲흥덕장씨 송광회(회장 장용환) 월례회=23일(화) 오후 7시 중흥동 코리아하우스. 010-5522-9700.

향우회

▲재광 영암군 향우회(회장 김재철) 송년의 밤=22일(월) 오후 6시30분 농성동 메리어트웨딩홀. 011-601-8630(총무국장 김광만).

▲재광 보성군 득량면 향우회(회장 이현기)=22일(월) 오후 6시 백운산 회관. 016-618-3124.

▲재광 보성군 향우회(회장 이하은)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23일(화) 오후 5시30분 호남대 광산캠퍼스, 오후 4시30분 옛 전남도청앞 출발.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호남해바라기 아동센터 무료 상담 및 의료·법률 지원=성폭력 피해를 입은 13세 미만 아동 및 정신지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긴급구조, 의료·법률 지원 및 심리 치료 등 원스톱 서비스. 062-232-1375, www.forchild.or.kr

▲광주심리상담센터 습관성 도박 무료 상담=습관성 도박 및 투기, 투자에 대한 전문 상담치료. 062-527-3400, 3403.

모집

▲수도방위사령부 제33경비단 호남 전우회 모집=김인기(부회장·불사조 321기) 011-633-5747.

▲사랑의 배움학교 문해 한글과정 자원봉사 교사 및 수강생 모집=성인한글 기초·중급·고급반, 중입 검정고시반, 한문반. 광산구 하남 성심병원 인근. 062-951-5397, 011-9456-6037.

▲운암골 족구회 회원 모집=일요일 오후 운암동 예술고. 011-609-2850(전일찬).

▲푸른복지 문화센터 무료 수강생 모집=홈패션, 리본공예, 웃음치료, 칼라믹스, 종이접기, 댄스스포츠 등. 010-9940-1769.

▲(사)전남장애인재활협회 지회 모집=전남 시·군 지역(순천, 나주 제외), 복지분야 경험자로 덕망있는 자. 061-334-3636.

▲인우회 회원 모집=광주지역 전·의경 전역자들의 모임, 회장 019-277-0007.

▲푸른학당 자원봉사 및 학생 모집=문해교육(한글과정), 초등·중등 과정, 검정고시반. 062-529-1188, 010-9940-1769.

부음

▲이득효씨 별세 우조(미즈피아 산부인과 병원 대표원장)·종영(아이아스골프 대표)·형남(컬린원 대표)씨 부친상 고영달(광주아울렛 대표)씨 빙부상=발인 23일(화) 상무병원 장례식장 특실. 062-600-7400.

▲임호열씨 별세 병락·경락·기락·성락·남진씨 부친상=발인 23일(화)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062-231-8901.

▲나광순씨 별세 박남서·은서·기서·희서·순남·순덕·순희씨 모친상 강형술·나정훈·이재복·김문철씨 빙모상=발인 23일(화)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3분향소. 062-231-8903.

▲김순례씨 별세 김판용·용국·국일·야순·미례씨 모친상 이화성·김옥채씨 빙모상=발인 23일(화) 각화동 그린장례식장 5분향소. 062-250-4405.

▲정인태씨 별세 영택·성택·현택씨 부친상=발인 23일(화) 각화동 그린장례식장 3분향소. 062-250-4403.

▲정희탁씨 별세 박문실씨 상배 승규·승택·승필·승희씨 부친상=발인 23일(화) 학동 금호장례식장 101호. 062-227-4385.

▲김덕용씨 별세 민기·동욱·희진·미경·하영·지향·유경씨 부친상 조정현·송동경·배성진씨 빙부상=발인 23일(화) 학동 금호장례식장 301호. 062-227-4382.

▲안연수씨 별세 호상·순옥·인숙·복희씨 부친상 배상근·박성주·천형일씨 빙부상=발인 26일(목) 우산동 무등장례식장 302호. 062-515-4488.